

반자율 주행도 안심은 금물



자동차의 수단과 의미는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카라이프’에 따르면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혹은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 역시 편의 사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130여 년간 이른바 수퍼 갑의 입장이었던 자동차 메이커가 최근 IT 기업들과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더 이상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제품이 아닌 융합제품으로 센서 및 반도체 모듈이 대거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글과 애플 역시 이 시장을 넘보고 있어 앞으로의 자동차 판을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동차가 디바이스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현재로서는 EV(전기자동차) 자율 주행을 통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웨어러링만이 대안이다. 완벽히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자율 주행의 장점을 꼽자면,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사고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사고도 지금보다 줄일 수 있으니 인명 사고로 슬퍼질 일 역시 사라질 것이다.

모빌리티 웨어러링은 공유경제 흐름상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다. 도시들은 늘 교통 정체로 시달리는 탓에 자동차를 굳이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때다. 그런 점에서 모빌리티 웨어러링은 도시 국가에서는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메이

커 역시 모빌리티 웨어러링 사업에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석이 있는 한 자율주행은 의미가 없다. 현재 자율 주행 기술 수준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반자율 주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는 운전 보조 기능 정도라서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나태한 운전자들이 반자율 주행 차를 타는 경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선행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이 비어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이다.

반자율 주행을 켜도 오른발은 언제나 제동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스티어링 휠은 항상 손에 놓지 말아야 한다. 기술적 과도기 동안은 자율 주행 관련 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에 운전석이 존재하는 한 운전전에 집중력을 떨어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율 주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가장 앞서 상용화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도 이미 사고로 사망자가 여럿 발생했다.

LA에서 테슬라를 타고 자율 주행 기능을 켜 상태로 잠든 여성도 있었다. 타 메이커 역시 마찬가지여서 보행자 사망사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자율 주행차는 폭우, 폭설,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어두운 곳과 포트홀(도로의 움푹하게 파인 구멍)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생명과 안전의 개념에서 보자면 아직 자율 주행 기능은 ‘오류투성이 흥기’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자율 주행의 조건은 운전석이 없어야 한다. 자율 주행을 켜 상태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결국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스릴 만점 ‘카트 레이싱’

카트는 운전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카트는 운전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꼬마 포물러라고도 불리는 카트는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즐길 수 있다.



▲ 카트는 미전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레이싱 스포츠이다.

카트는 모터스포츠 카테고리 중 가장 기본을 차지하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의 아트 앵겔스가 파이프 프레임 위에 잔디깎이용 엔진을 올려 고카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이래 카트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F1 선수 대부분이 카트로 입문했고 투어링카 선수 역시 카트 출신들이 많다.

카트는 크게 레저와 스포츠, 레이싱으로 구분되며, 동력원에 따라 가솔린 4행정, 가솔린 2행정으로, 전기모터로 나뉜다. 여기에 최고 카테고리 올라가면 변속기가 달린 슈퍼카트가 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4행정 레저카트가 가장 적합하다. 속도에 대한 부담이나 전복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누구나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트에도 전기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카트가 등장했다. 대부분 실내 카트 트랙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놀이공원에서 사용하던 구동계를 카트에 이식한 케이스다. 전기 카트는 골프장 카트에서 높이를 낮춘 형태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미국에는 중소도시 단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카트트랙이 많다.

전기 카트의 특징은 내연기관과 달리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이용해 재빠른 가속과 높은 속도감을 즐길 수 있으며 배출가스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연기관 특유의 진동과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질적이라 평가기도 한다. 회원가입 시스템을 기반으로한 번 등록해 놓으면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카트를 즐길 수 있다.

카트는 50~60km의 최고속도로 비교적 안전한(?) 속도 내에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지만 레이싱 카트는 100마력 안팎의 엔진으로 최고 150km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최고속도가 50~60km에 불과하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몸이 지면에 거의 닿아 있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속도는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카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복장이 좋다.

또한 하이힐이나 샌들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트 트랙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헬멧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행 전 안전교육과 코스 설명 등을 함께 진행한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트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애너하임과 어바인, 놀워, 가디나, 코로나 등, 관심을 기울이면 거주 지역 근교에 카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다. 구글 검색창에 ‘carts Racing’ 혹은 carts track’으로 검색하면 카트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